

##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시은<sup>1</sup>, 전지혜<sup>2\*</sup>

<sup>1</sup>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sup>2</sup>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A Study on Social Safety Perception and its Influential Factors for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Si-Eun Park<sup>1</sup>, Ji-Hye Jeon<sup>2\*</sup>

<sup>1</sup>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up>2</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 수준과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사회조사에 응답한 50세 이상 장애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위험대처수준, 본인준법수준, 타인준법수준, 공공질서 준수수준을 주요 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영향의 수준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조사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위험대처수준, 타인 준법수준, 공공질서 준수수준 요인이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에는 개인적 요건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장애유형별 안전인식에 대한 차이를 연구하거나 인식과 함께 실제적 사회안전수준도 연구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 중고령 장애인, 사회안전 인식, 통계청 사회조사, 준법수준, 건강상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and influence factors of social safety perception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older than 50 with disabilities who responded to the 2018 Social Survey. The results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zes showed that factors such as gender, age, place of residence, education level, subjective health status, risk response level, compliance level of others, and compliance with public orde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ocial safety perception level. Through this study, we could know the importance of personal requirements and social capital for social safety perception of middle-aged and olde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future, the differences in safety perception by type of disability should be studied too.

**Key words** :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Social safety perception, Statistics Korea Social Survey, compliance level, health status

### 1. 서론

현대 한국사회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는 중차대한 위협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실 고령화 문제는 장애인 인구집단에도 예외는 아니다. 2019년 9월 기준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5.3%[1]인 것에 비해 고령

장애인 비율은 46.7%(2018년 기준)로 전체장애인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이미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으며 50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이 30.6%임을 고려하면[2], 향후 고령 장애인 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orresponding Author : Ji-Hye Jeon(ikwwjh@hamail.net)

Received October 14,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Revised November 1,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이러한 고령 장애인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 대응은 미비한 수준이다[3]. 고령 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을 동시에 경험하는 높은 복지욕구를 가진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 영역과 노인복지 영역 어느 곳에서도 우선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정책영역에서도 성인장애인의 일부로만 다뤄지고 있다[4,5]. 고령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전체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등을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지지 않는다[5]. 이는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마련되어 있고, 장애여성에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세부조항에 장애여성 부분을 명시하거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여성 조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정책적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안전과 관련하여 고령 장애인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다. 사회안전이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안전으로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전염병, 범죄 등의 위험요소들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장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6].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사회안전에 취약하며, 뉴스보도와 연구 등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7-11]. 장애인이 이동 및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을 경우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 비해 비상상황에 대한 위기대처능력이 낮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7]. 이와 같은 장애인의 사회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이외에도 장애인 재난관리 체계 및 재난위기관리 매뉴얼개발 연구[12-17], 장애인 범죄피해 실태 및 범죄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18-20],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필요성 연구[21] 등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장애와 고령으로 인해 사회안전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사회안전 문제는 사회적 대응을 더욱 필요로 한다. 특히 고령 장애인의 증가와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고려할 때 향후 어떠한 개인적·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지도 연구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중고령 장애인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도 경험하고 있어서 더욱 사회안전 및 사회적 돌봄과 책임

에 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 현재 장애인에게 일상적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 제도는 만 65세 이전의 장애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 장애인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이며, 탈락할 경우에만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서비스 제공 양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서비스로 대부분 전환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 상이하나 하루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활동지원제도에 비해서 장기요양은 3.6시간가량 이용할 수 있기에 다수 고령 장애인들은 돌봄 사각지대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서비스의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하여 장애계의 큰 반발을 일으킨 일도 있었다[22]. 결국 장애특성과 노화로 인한 이중고에 더하여 부족한 사회적 돌봄체계 속에서 고령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위협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고령을 앞두거나, 현재 고령상태에 있는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수준과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이 인지하는 사회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정도는 실제 사회안전 수준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사회안전 인식수준은 그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23-25]. 특히 사회안전 인식수준은 같은 사회 안에 살더라도 개인의 사고경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본, 안전교육 정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6, 23-28]. 여성, 노인 등 일반적으로 사회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집단의 사회안전 인식수준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6, 23, 26]. 따라서 고령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사회안전 인식과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수준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중고령 장애인이 인식하는 사회안전의 수준과 특성은 어떠한지, 또한 이들의 사회안

전 인식수준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봄으로써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고령 장애인을 포괄한 사회안전 관리체계 구축시 고려해야할 점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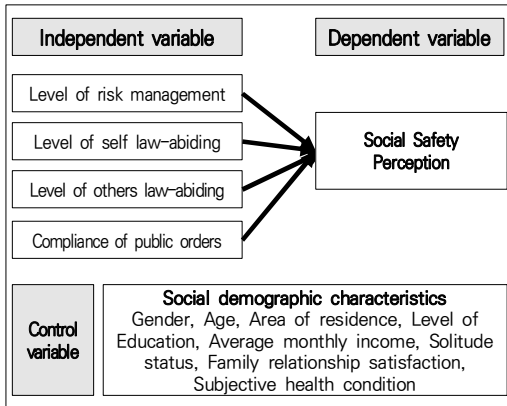


Fig. 1. Social Safety Perception and its Influential Factors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Fig. 1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으로 중고령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험대처수준, 본인준법수준, 타인준법수준, 공공질서 준수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했으며, 통제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시켰다. 이는 사회안전 인식수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안전 관련 규정준수, 신뢰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수준과 안전교육 정도를 주요 변수로서 사용한 선행연구를 참고했다[24].

### 2.2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18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이차자료 활용연구이다. 사회조사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의 기본항목과 10개 부문의 항목을 2년 주기로 5개 부문씩 선정하여 조사한다. 2018년 사회조사에서는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5부문이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안전부문에 해당하는 응답 결과를 주로 사용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사회조사에 참여한 만 50세 이상 등록장애인 1,612명이며, 이는 2018년 사회조사에 참여한 42,550명 중 만 50세 이상,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했다고 응답한 참여자를 선택한 결과이다. 분석대상으로서 만 50세 이상 장애인을 선택한 이유는, 2018년 기준 만50세~ 64세 장애인 비율 30.6%, 만65세 이상 장애인비율 46.7%로 현재 장애고령인구가 절반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빠른 미래에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안전관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만50세 이상의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 수준과 특성을 함께 고려했다.

### 2.3 변수의 측정방법

첫째, 통제변수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남성=1, 여성=0), 연령, 거주 지역(수도권=1, 기타=0), 교육정도(초등이상=1, 무학=0), 가구소득(월100만원 이상=1, 월100만원 미만=0), 독거유무(비독거=1, 독거=0), 가족관계 만족도(매우불만족=1, 매우만족=5),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매우건강하지않음=1, 매우건강=5) 변수가 해당된다.

둘째, 독립변수는 위험대처수준, 본인의 준법수준, 타인의 준법수준과 우리사회의 공공질서 준수 수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대처수준은 긴급 상황 시 전화번호,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법,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방법 인지여부를 1점 = 전혀 모른다 부터 4점 = 아주 잘 알고 있다 까지 4점 척도로 측정했다. 또한 4개 문항의 결과를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했는데,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 .82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인의 준법수준, 타인의 준법수준 그리고 공공질서 준수수준은 각각 1점 = 전혀 지키지 않는다 부터 5점 = 아주 잘 지킨다 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그 중 공공질서 준수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는 거리환경 유지, 운전자 교통질서, 공공장소 금연 총 4문항으로 측정했으며, 4개 문항 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측정한 결과 .840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속변수인 사회안전 인식수준은 총 11개 문항(국가안보, 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화재, 먹거리, 식량안보, 정보보안, 신종질병, 범죄발생, 전반적인 사회안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 = 매우 안전하지 않다 부터 5 = 매우 안전하다 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

었다. 연구 분석에는 각 문항의 결과를 합산한 값이 사용되었으며 11개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Cronbach's  $\alpha$  값 .910인 것으로 확인했다.

### 2.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대처수준 및 공공질서 준수수준, 사회안전 인식수준 척도의 신뢰도를 Cronbach's  $\alpha$  계수로 확인했다. 둘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주요 변수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각 변수의 다중공선성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한 후 응답자의 위험대처수준, 본인 준법수준, 타인 준법수준, 공공질서 준수수준이 사회안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투입된 모든 변수를 고려한 모델을 이전 모델과 비교하여 변수 간 영향의 차이를 볼 수 있다.

## 3. 분석결과

### 3.1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은 741명(46.0%), 남성은 871명(54.0%)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68.9세(표준편차 10.2)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361명(22.4%),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1251명(77.6%)이었고, 교육 정도는 무학이 507명(31.5%), 초졸(중퇴 포함)이 563명(34.9%), 중졸(중퇴포함) 이상이 542명(33.6%)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673명(41.7%), 100만원-200만원 미만 392명(24.3%)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41명(15.0%),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124명(7.7%), 400만원 이상이 182명(11.3%)로 나타나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독거여부 분석결과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는 비독거 응답자가 1209명(75.0%), 독거 응답자가 403명(2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불만족 25명(1.6%), 불만족 70명(4.3%), 보통 697명(43.2%), 만족 549명(34.1%), 매우만족 271명(16.8%)으로 응답하여 절반 이상이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나쁨 262명(16.3%), 나쁜 편 677명(42.0%), 보통 449명(27.9%), 좋은 편 186명(11.5%), 매우 좋음 38명(2.4%)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612)

Variables		Frequency	%
Gender (M=1, F=0)	Male	871	54.0
	Female	741	46.0
Age		68.9(s.d. 10.245)	
Area of Residence (1=Capital, 0=ect)	Capital(Seoul, Gyeonggi, Incheon)	361	22.4
	ect	1251	77.6
Level of Education (0= Uneducated, 1=Graduated elementary school, 2= Above middle school)	Uneducated	507	31.5
	Graduated elementary school	563	34.9
	Above middle school	542	33.6
Average monthly income (1=Above 1 million won, 0= Below 1 million won)	Below 1 million won	673	41.7
	1 ~ 2 million won	392	24.3
	2 ~ 3 million won	241	15.0
	3 ~ 4 million won	124	7.7
Solitude Status (1=Not solitude, 0=Solitude)	Above 4 million won	182	11.3
	Not solitude	1209	75.0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1=very low, 5=very high)	Solitude	403	25.0
	very low	25	1.6
	low	70	4.3
	normal	697	43.2
	high	549	34.1
Subjective health condition (1=not very good, 5=very good)	very high	271	16.8
	not very good	262	16.3
	not good	677	42.0
	normal	449	27.9
	good	186	11.5
	very good	38	2.4

3.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특성

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수인 위험대처수준, 본인 준법수준, 타인준법수준, 공공질서 준법수준과 종속변수인 사회안전 인식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의 내용과 같다. 먼저 본인 위험대처수준(4점 척도, 4문항 합계)의 평균은 10.7(SD 2.87)인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 준법수준(5점 척도)은 평균 3.9(SD .73), 타인

준법수준(5점 척도)은 평균 3.3(SD .86), 공공질서 준수수준(5점 척도, 4문항 합계)은 평균 12.9(SD 3.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사회안전 인식수준(5점척도, 11문항 합계)은 평균 33.87(SD 7.66)로 확인되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Variable and Dependent Variable

(N = 1,612)

Independent Variable		Min	Max	M	SD
Level of risk management (4)	1= very low 4= very high	4	16	10.7	2.8718
Level of self law-abiding	1= very low 5= very high	1	5	3.90	.7342
Level of others law-abiding		1	5	3.2891	.8585
Compliance of public orders(4)		4	20	12.8567	3.2104
Dependent Variable		Min	Max	M	SD
Social Safety Perception	1= very low 5= very high	12	60	33.8747	7.6556

3.3 사회안전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앞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 $r=.055, p<.0.05$ ), 전반적 가족만족도( $r=.062, p<.0.05$ ), 주관적 건강평가( $r=.096, p<.0.01$ )

본인 준법수준( $r=.099, p<.0.01$ ), 타인 준법수준( $r=.228, p<.0.01$ ), 공공질서 준수수준( $r=.256, p<.0.01$ )과 사회안전 인식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거주지역( $r=-.053, p<.0.05$ ), 교육수준( $r=-.050, p<.0.05$ )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Gender	1												
2 Age	-.172**	1											
3 Residence	.043	-.172**	1										
4 Education	.235**	-.343**	.162**	1									
5 Income	.148**	-.278**	.050*	.247**	1								
6 Solitude	.212**	-.126**	.031	.131**	.452**	1							
7 Family Satisfaction	-.032	.062*	-.115**	.037	.053*	.072**	1						
8 Health	.172**	-.234**	.013	.243**	.240**	.111**	.150**	1					
9 Risk Management	.340**	-.395**	.156**	.353**	.187**	.167**	.081**	.260**	1				
10 Self law-abiding	-.073**	.108**	-.056*	-.005	-.009	-.037	.206**	.050*	.088**	1			
11 Others law-abiding	-.081**	.060*	-.105**	-.039	.011	-.001	.166**	.048	-.045	.349**	1		
12 Public orders	-.051*	.037	-.113**	-.015	-.003	.043	.137**	.054*	.021	.251**	.544**	1	
13 Social Safety	.016	.055*	-.053*	-.050*	.013	-.010	.062*	.096**	-.049	.099**	.228**	.256**	1

Table 4는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이다. 해당 회귀분석 모델은 10.2%의 설명력을 가지고,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통제변수가 사회안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성별, 연령, 교육정도, 거주지역, 주관적 건강평가 변수가 정적 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는 응답자의 연령 ( $\beta = .065, p < (0.05)$ ), 주관적 건강평가( $\beta = .112, p < (0.01)$ )가 사회안전 인식에 정적 영향을, 거주지역( $\beta = -.097, p < (0.01)$ ), 교육정도( $\beta = -.058, p < (0.05)$ )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성별( $\beta = .059, p < (0.05)$ ), 주관적 건강평가( $\beta = -.101, p < (0.01)$ )가 정적 영향을, 거주지역( $\beta = -.088, p < (0.01)$ )이 부적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사회안전 인식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위험대처수준( $\beta = -.062, p < (0.05)$ )은 부적 영향을, 타인준법수준( $\beta = .107, p < (0.01)$ )과 공공질서 준수수준( $\beta = .189, p < (0.01)$ )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Influential Factors to Social Safety Perception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N = 1,612)

Variables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Gender	.390	.025	.910	.059*
Age	.049	.065*	.027	.036
Area of residence	-1.777	-.097**	-1.611	-.088**
Education	-.552	-.058*	-.414	-.044
Family Income	.564	.036	.578	.037
Solitude	-.471	-.027	-.593	-.034
Family Satisfaction	.341	.039	.016	.002
Health condition	.882	.112**	.800	.101**
Risk management			-.165	-.062*
Self law-abiding			.159	.015
Others law-abiding			.958	.107**
Compliance public orders			.451	.189**
$R^2 / R^2 \square$	.031 / .026		.102 / .095	
F	6.314**		15.123**	

#### 4. 논의

본 연구는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50세 이상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 수준

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위험대처수준, 본인준법수준, 타인준법수준, 공공질서 준수수준을 각각 측정하고 사회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영향의 수준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 평균 연령은 68.9세로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었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교육 및 소득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었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대부분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관적 건강수준을 대체로 낮게 평가했다.

둘째, 응답자의 위험대처수준은 평균 10.7(최대값 16)이며, 본인 준법수준, 타인준법수준은 각각 3.9, 3.3(최대값 5)로 타인보다 본인의 준법수준을 더 높게 평가했다. 공공질서 준법수준은 평균 12.9(최대값 20)이었으며, 사회안전 인식수준은 평균 33.9(최대값 55)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극단적으로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이었다.

셋째, 상관관계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일반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독립변수와 사회안전 인식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했으며, 회귀분석모델의 설명력은 10.2%( $p < .001$ )로, 몇몇 변수들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했다. 먼저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에는 연령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보다 그 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본인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안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결과는 독립변수를 함께 고려했을 때 일부 변화하는데, 이 때 성별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안전 인식이 높게 나타나게 되며 응답자의 연령과 교육정도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된다. 또한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사회안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평소 사회안전에 대한 인지나 위험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은 위험 대처준비도 낮고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타인의 준법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낮게 평가하는 사람보다, 사회의 공공질서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낮게 평가하는 사람보다 사회안전 인식이 높

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본인의 준법수준과 사회안전 인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타인이 사회질서를 잘 지킨다고 인식하는 중고령 장애인 일수록 한국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타인이 개인에게 위협한 존재가 아니라고 인식할수록 중고령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과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기초수준의 연구로서, 향후 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일정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본 연구가 가진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후속연구들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본 연구의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 인식 수준의 성별 차이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증명되었으며[6, 23, 26], 중고령 장애인 그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다. 거주 지역의 영향의 경우, 수도권보다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범죄, 교통사고, 건축물 및 시설물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 증진 정책계획 시 장애인의 성별, 거주지역 등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좋은 건강상태는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요소로,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과 장애를 동시에 경험하는 응답자의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중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건강서비스 및 보조기구 등의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안전 및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애인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지원은 사회안전 인식향상 외에도 많은 함의를 갖는다.

셋째, 타인의 준법수준과 공공질서 준수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안전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사회적 노화와 장애로 인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다양한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으며 이는 타인

과 사회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보호와 안전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다양한 주민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29].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18 사회조사 결과에서 50세 이상의 중고령 장애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기존 데이터에서는 장애인등록증 소지 유무 외에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구체적인 장애정보를 묻는 문항이 없어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인식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관련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향후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 관련 연구는 장애인의 연령, 성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조사 및 관련 통계에 장애관련 문항이 추가되거나, 장애인실태조사 등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에 사회안전 인식관련 문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등 15개 종류의 장애유형별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과 준비, 필요한 정책적 내용은 매우 상이할 것이다. 추후에 전체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사회안전 인식수준을 세부적으로 분석·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장애인의 취약한 사회안전 분야에서의 정책적 대응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수준을 연구범위로 설정했기에 연구모델이 개인차원의 변수만을 다루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을 고려한 데이터가 수집된다면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활동지원제도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나, 사회적 안전망 및 지원체계 활용정도, 장애특성이 고려된 사회환경적 편의지원에 대한 체감정도를 연구모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활용하였기에 고령 장애인의 활동지원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여부 등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를 연구모형에 넣기 어려웠다. 추후에는 사회서비스나 돌봄지원이 고령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층의 사회적 안전인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고령 장애인의 집합적인 사회안전 인식수준

의 분석은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사회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23-25].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적 측면의 인식수준과 대처준비에 관한 부분만 다루었기에 추후 관련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조사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및 심층면담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실시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사회안전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9). *General Division for Regional Statistic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ld=DT\\_1YL2063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ld=DT_1YL20631&conn_path=I2)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Registered Disabled Person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ld=DT\\_11761\\_N002&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ld=DT_11761_N002&conn_path=I2)
- [3] J. H. Kim et al. (2017). *2017 The disabled white book*. Seoul : Koddi
- [4] J. R. Lee. (2019). Looking for Ways to Improve the System of Support for the Activities of Disabled Persons a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For the Disabled Persons with Elderl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2), 1211-1222.
- [5] S. E. Cho, H. J. Lee, S. H. Lee & S. E. Lee. (2017). *Needs Assessment and Mid-long Term Policy for Elderly with Disabilities*. Seoul : Koddi
- [6] J. H. Seo & S. J. Lee. (201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Citizen's Perception of Social Safety and Risk : With a Focus on Regional Governments. *Crisisonomy*, 8(3), 1-20.
- [7] K. J. Lee.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iving Safety Status of Disabled*.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mposium*(pp. 62-75). Seoul: KACEM.
- [8] S. G. Lee. (2018.03.15.). *Death of the Disabled used a lift, Terrible Court Fight* Able News. [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0315140639325509](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0315140639325509)
- [9] S. H. Kim et al. (2017). *2018 Survey on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10] J. Y. Kim, S. H. Choi, K. C. Lee, J. K. Lee, K. W. Kim. & J. K. Choi. (2018). *A Study on the Crime Against Person with Disabilities*.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11] K. Y. Bae. (2019). A Study on the Real Condition of Teachers' Safety Accident and Methods of Preventive Education in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Mental Disord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8), 131-139.  
DOI : 10.14400/JDC.2019.17.8.131
- [12] S. W. Kim & S. M Roh. (2016). Basic Research for Preparation of a Disabled-Inclusive Publ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0(1), 1-22.
- [13] J. H. Kim. (2019). Beach-Lifeguard Consideration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8), 245-253.
- [14] S. D. Kim, S. H. Lee, K. H. Choi & C. S. Cheung. (2017). A Comparative Study of on-site Action Manual for People with Disaster Vulner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3(2), 155-162.
- [15] J. B. Kang, J. O. Kang, J. H. Lee & K. M. Lee. (2017). *Research on Disabled-Inclusive Public Disaster Management Manual and Support System*. Seoul : Koddi
- [16] C. W. Oh, J. S. Ahn & Y. J. Oh. (2017). A study on Evacuation Geographic Information for Blind People as Disaster Vulnerable Population.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51(2), 195-208.
- [17] S. S. Byun, D. H. Kim, J. E. Lee, J. I. Na, S. Cho & G. H. Kim. (2018). Rebuilding a Support System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Disasters - Lessons from USA and Japan -. *Crisisonomy*, 14(5), 15-34.
- [18] B. Y. Oh & D. I. Chun. (2017). A Study on the Literature about the Fear of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among the Disabled. *Disability & Social Welfare*, 8(1), 73-95.
- [19] S. K. Shin. (2019). A Study on the Disability Hate Crime : Convergent Approach of Correction and Welfar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 467-474.  
DOI : 10.14400/JDC.2019.17.1.467
- [20] J. Y. Kwak & M. K. Kang. (2015). The Study on the Explanatory Factors of the Disabled Women's Safety in the Convergence Society.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3(4), 405-416.



- [21] H. J. Seo, J. H. Jeon, M. H. Kang, S. Y. Won, J. G. Kim, W. Y. Seo & K. S. Lee. (2014).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application of 24-h PAS for People with Severely Disabilities*. 2014 KODDI Summary Report, 271-282.
- [22] S. K. Lee. (2019. 08. 26.).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ressure 'PAS for Elderly with Disabilities'*. Able News.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90826093233926387>
- [23] S. D. Jung, E. C. Oh & K. E. Kim. (2011). Age Differences in Safety Perception: A Comparison of Babyboomer, Pre-elderly, an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1(3), 75-81.
- [24] D. J. Lim. (2016). The Cognitive Level on Social Safety and its Influential Factors in South Korea : Focused on Local Citizens and Civil Servant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20(1), 91-92.
- [25] J. S. Lee, U. K. Kim & Y. Choi. (2017). Analyzing the Recognition of Urban Safety considering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Citizen: Comparison between Seoul and Busan.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2(3), 215-235.
- [26] B. D. Lee, J. G. Kim & Y. H. Yu. (2015). Multi-level Modeling Analysis on Factors of Fear of Crime - focusing on Crime Vulnerability and Social Disorganization -.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2(4), 49-70.
- [27] B. H. Kim. (2018). Analysis of the Awareness of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Culture of Residents. *Journal of Convergence and Consilience*, 1(2), 1-16.
- [28] Y. J. Jung. (2018). Factors Affecting Social Security Perception of the Elderly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2), 781-788.
- [29] C. H. Lee. (2018).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Satisfaction of Elderly lif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287-292.  
DOI : 10.22156/CS4SMB.2018.8.6.287

박 시 은(Si-Eun Park)

[학생회원]



- 2018년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 2018년 ~ 현재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 E-Mail : sieunpark@inu.ac.kr

전 지 혜(Ji-Hye Jeon)

[정회원]



- 2014년 : 일리노이주립대 장애학 (박사)
- 2015년 ~ 현재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장애인복지, 자립생활
- E-Mail: ikwwjh@inu.ac.kr